

## 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인 생애주기별 교육 요구도 분석

구진희<sup>1</sup>, 임효남<sup>2</sup>, 김두리<sup>2</sup>, 강경희<sup>3</sup>, 김설희<sup>3</sup>, 김용하<sup>4</sup>, 이종형<sup>4</sup>, 안상윤<sup>4</sup>, 김광환<sup>4\*</sup>,  
송현동<sup>5</sup>, 황혜정<sup>6</sup>, 김문준<sup>7</sup>, 박아르마<sup>7</sup>, 조지용<sup>8</sup>, 장경희<sup>9</sup>, 조영채<sup>10</sup>  
<sup>1</sup>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sup>2</sup>건양대학교 간호대학, <sup>3</sup>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sup>4</sup>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sup>5</sup>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sup>6</sup>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sup>7</sup>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sup>8</sup>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p>9</sup>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sup>10</sup>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by Adult Life Cycle for Well-agi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Jin-Hee Ku<sup>1</sup>, HyoNam Lim<sup>2</sup>, Doo-Ree Kim<sup>2</sup>, Kyung-hee Kang<sup>3</sup>, Seol-Hee Kim<sup>3</sup>  
Yong-Ha Kim<sup>4</sup>, Chong-Hyung Lee<sup>4</sup>, Sang-Yoon Ahn<sup>4</sup>, Kwang-Hwan Kim<sup>4\*</sup>  
Hyeon-Dong Song<sup>5</sup>, Hey-Jeong Hwang<sup>6</sup>, Moon-Joon Kim<sup>7</sup>, A-rma Park<sup>7</sup>,  
Gee-yong Jo<sup>8</sup>, Kyung-Hee Chang<sup>9</sup>, Young-Chae Cho<sup>10</sup>

<sup>1</sup>Division of Software Liberal Arts, Mokwon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sup>5</sup>Department of Global Hotel & Tourism, Konyang University, <sup>6</sup>Department of Health & Welfare Management,  
Konyang Cyber University, <sup>7</sup>College of Humanity, Konyang University, <sup>8</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yang  
University, <sup>9</sup>WellDying Convergence Laboratory, Konyang University,  
<sup>10</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웰에이징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조사도구는 웰에이징에 관한 인식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웰에이징 교육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2021년 2월 한 달 동안 한국갤럽의 온라인·모바일 조사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19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웰에이징 교육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Borich 요구도 분석 및 IPA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웰에이징을 위한 교육 요구도의 전체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경제력, 운동, 만성질환관리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요구도가 낮은 순으로는 감염질환관리, 자립심, 사회적 책임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력은 전체 응답자의 82.4%에 해당하는 중년기(35~4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년기에서는 운동과 만성질환관리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생애주기별 웰에이징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웰에이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실증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ecur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well-aging education programs by analyzing the physical, mental, and socio-economic needs of well-aging education for successful aging. The research tool was developed as a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well aging and the needs of well-aging education in terms of physical, mental, and socio-economic aspects. In February 2021, 1949 adults over the age of 19 were surveyed through an online and mobile survey by Gallup Kore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variance analysis, Borich needs analysis, and IPA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needs of well-aging education. The results revealed economic power, exercise,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to be high in terms of the overall priority of the education needs for well-aging, and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depende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were surveyed in the order of low education needs. In terms of economic power, education needs were highest among all age groups except for the middle-age group (35-49 years old), 82.4% of all respondents, and education needs for exercise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were highest in the middle-age gro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well-aging education programs for each life cycle.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empirical data in establishing a platform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educational programs for well aging.

**Keywords** : Education Needs, Life Cycle, Successful Aging, Well-aging, Well-dying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onyang Univ.)

email: kkh@konyang.ac.kr

Received April 8, 2021

Revised May 4, 2021

Accepted May 7, 2021

Published May 31, 2021

## 1. 서론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World Population Ageing 2019)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50년 기간 동안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국가 중 9개 국가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관찰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23.0% point)으로 보고되었다[1]. 이와 같이 최근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질적으로 높은 삶을 위한 웰빙(well-being)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2,3],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등장한 개념이 웰에이징(well ageing)이다. 웰에이징은 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토대로 노화를 긍정적인 변화과정으로 수용하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아통합의 발달과업을 목표로 하는 나이 들어감을 의미한다. 기존의 50년 이상 동안 연구 되어졌던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담론이 노년기의 성공적 삶에 집중되었다면 웰에이징은 노년기의 성공적 삶이 그 이전의 청년기와 중년기, 장년기의 삶의 과정에 그 열쇠가 있음을 강조한다[4,5]. 따라서 웰에이징은 어떤 특정한 삶의 시기가 아닌 인간 삶 전체를 노화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성공적 노화 개념의 확장된 개념이라 할 것이다[6-9].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적 노화에 어떻게 이르는가?” 하는 것이다[10]. 또한, 의학적 접근과 심리 사회적 접근으로 구분한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의학적 접근은 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기능을 측정하며, 심리사회적 접근은 사회적 기능, 삶의 만족, 심리사회적 자원(예: 적응, 조절, 생산성, 사회적 능력, 기술, 자기절제, 사회적 기능 등)을 측정한다[11].

2018년 기대수명은 1970년 이후 약 20세 증가한 82.7세로[12],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의 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 사회적 관심 수준을 넘어 다가올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단계이다[13].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은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살아가는 것’ 혹은 ‘잘 늙어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14,16]. 사회 전반에 걸친 ‘wellbeing’, ‘wellness’의 가치 선호는 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30-40대와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중년기 역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17,18]. 노화는 인간발달의 과정 중 상승적 발달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성숙 이후의 단계로 퇴행이 일어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 지속적인 기능의 결핍이 심화,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을 의미한다[19]. 노화의 과정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개인의 생활양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마다 시기나 정도에 있어서 다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20]. 이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수준은 어떤 노화를 맞이하게 되는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156개 국가 중 54위로[21], 경제적 수준과 비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사회에 대비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웰에이징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웰에이징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접근은 신체적 질병이나 제한을 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이나 수명 등 생물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신체적, 인지적 노화의 문제를 위한 접근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상 사회적 위험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민간영리기관까지 포함시키는 자율적 시장경쟁은 결국 노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의 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22]. 이는 노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인식전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23]. 따라서 노화 개념을 제한된 시간적 종속적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성공적 노화는 전 생애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과업으로서 국민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웰에이징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보완 및 서비스를 위한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웰에이징에 대한 개념과 인식,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생애 주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 정서 및 인지의 변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화의 기초지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24,25]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형 웰에이징 모델을 개발,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국갤럽의 온라인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추출은 성별, 연령별 할당 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목적과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읽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9.6을 활용하였고 최소표본은 1834명으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017명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유효 표본 수는 1949명이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웰에이징 관련 포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웰에이징 교육 관련 일반적 특성, 웰에이징 관련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특성,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웰에이징 교육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 2.2.1 연구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종교, 건강보험종류, 직업군, 결혼상태, 세대유형, 주거형태, 월평균가구소득 등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2.2 웰에이징 교육 관련 일반적 특성

웰에이징 교육 관련 문항은 웰에이징에 대한 인식과 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 2.2.3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측면 교육 요구 분석

웰에이징과 관련하여 신체적 특성 8문항, 정신적 특성 14문항, 사회경제적 특성 10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웰에이징 교육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신체적 영역 7문항, 정신적 영역 6문항, 사회경제적 영역 5문항에 대해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 2.3 통계분석

조사 자료는 IBM SPSS v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특성, 웰에이징 교육 관련 일반적 특성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신체적 영역, 정신적 영역, 사회경제적 영역의 하위항목에 대한 교육 요구도 분석은 Borich의 요구도 분석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998명(51.2%), 여성 951명(48.8%)이고, 연령층은 청년층(19-34세) 515명(26.4%), 중년층(35-49세) 608명(31.2%), 장년층(50-64세) 636명(32.6%), 노년층(65세 이상) 190명(9.7%)이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s (N=1949)

	Spec.	N	%
Gender	Male	998	51.2
	Female	951	48.8
Age	19-34	515	26.4
	35-49	608	31.2
	50-64	636	32.6
	65+	190	9.7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93	20.2
	University	1314	67.4
	Graduate school	242	12.4
Religion	Christian	458	23.5
	Catholic	206	10.6
	Buddhism	249	12.8
	Atheism	1030	52.8
	etc.	6	0.3
Health Insurance	Local subscribers	578	29.7
	Workplace subscriber	1233	63.3
	Medical benefit subscribers	114	5.8
	etc.	24	1.2
Job	Agriculture/fishery/live stock	19	1.0
	Self-employed	130	6.7
	Blue-collar	179	9.2
	White-collar	1028	52.7
	Housewife	250	12.8
	Student	145	7.4
	Inoccupation	193	9.9
	etc.	5	0.3
Married	Single	704	36.1
	Married	1145	58.7
	Separation, bereavement, divorce	100	5.2
Housing type	Detached house	212	10.9
	Multiplex house	334	17.1
	Apartment	1358	69.7
	etc.	45	2.3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200	185	9.5
	200~399	564	28.9
	400~599	570	29.2
	600~799	314	16.1
	>=800	316	16.2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력은 대졸이 1314명(6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 1030명(52.8%),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1233명(63.3%),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 1028명(52.7%)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유무는 기혼자 1145명(58.7%), 주택유형은 아파트 거주자가 1358명(69.7%),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599만원 570명(29.2%), 200~399만원 564명(28.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 3.2 웰에이징 관련 일반적 특성

Table 2에서 연구대상자의 42.3%는 웰에이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생애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청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웰에이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웰에이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웰에이징을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 대상 복수응답 조사결과, 84.8%는 '대중매체'를 통해 웰에이징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 및 보건소'(23.0%), '주변사람'(20.1%)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웰에이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92.5%이었고, 웰에이징 인지수준이 높아질수록 '필요하다' 응답 비율이 높아지며, 웰에이징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필요하다' 응답 비율이 98.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웰에이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6%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웰에이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교육 받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신건강'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체건강'(24.8%), '대인관계'(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3.5%는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여성(79.6%) 대비 남성(87.3%), 중장년(81.7%) 및 노년(82.4%) 대비 청년(87.5%)의 교육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웰에이징 교육의 효과적 시작 시기로 '청년(만 19~29세)'이 29.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중년(만 30~49세)' 29.3%, '청소년(만 13~18세)' 2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Well-aging awareness and educational experience

(N=1949)

	Spec.	N	%
Well-aging awareness	Yes	825	42.3
	No	1124	57.7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multiple check)	Regional Center	156	18.9
	Medical institution	190	23.0
	Educational institution	160	19.4
	Mass media	700	84.8
	Financial institution	99	12.0
	Friend	166	20.1
	etc	4	0.5
Need for education	Yes	1803	92.5
	No	146	7.5
Educational experience	Yes	109	5.6
	No	1840	94.4
Educational experience contents (n=109)	Physical health	27	24.8
	Mental health	48	44.0
	Human relationship	13	11.9
	Leisure activities	9	8.3
	Volunteer	4	3.7
	Asset management	6	5.5
Start time of education	Economic activity	2	1.8
	Youth(13-18)	538	27.6
	Adolescence(19-29)	583	29.9
	Middle age(30-49)	571	29.3
	Manhood(50-64)	228	11.7
Education contents	old age(65+)	29	1.5
	Physical health	294	15.1
	Mental health	1054	54.1
	Human relationship	80	4.1
	Leisure activities	56	2.9
	Volunteer	28	1.4
	Asset management	274	14.1
	Economic activity	155	8.0
	etc	8	0.4
	Appropriate training time	Within 5 hours	450
Within 10 hours		493	25.3
Within 15 hours		189	9.7
Within 20 hours		263	13.5
More than 25 hours		550	28.2
Teaching method	Lecture+Experience	1010	51.8
	Lecture	376	19.3
	Cyber education	368	18.9
	Workshop	72	3.7
	Educational material	60	3.1
	Seminar	55	2.8
Place of Education	etc.	8	0.4
	Educational institution	665	34.1
	Regional organization	604	31.0
	State organization	429	22.0
	Medical institution	173	8.9
	Workplace	68	3.5
	etc.	10	0.5

생애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청년은 '청년(만 19~29세)' 시기에, 중장년은 '중년(만30~49세)' 시기에, 노년은 '장년(만50~64세)' 시기에 웰에이징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웰에이징 인지자, 웰에이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웰에이징 교육의 효과적 시작 시기로 '중년(만 30~49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4.1%)가 웰에이징에 관한 교육에서 '정신적 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신체적 건강'(15.1%), '자산관리'(14.1%), '경제활동'(8.0%) 등의 순이었고, 특히, 웰에이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정신적 건강'(49.5%), '신체적 건강'(16.5%) 다음으로 '대인관계'(14.7%)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웰에이징 적정 교육시간(평생 기준)으로 '25시간 이상'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웰에이징 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시간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다. 효과적인 웰에이징 교육 방법으로 '강의+체험' 다음으로 '사이버 교육'이 높은 특

징을 보였고, 웰에이징 교육 실시 기관으로 전체 응답자의 34.1%가 '학교,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 3.3 웰에이징에 대한 교육요구도

웰에이징에 대한 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신체적 측면의 7문항, ·정신적 측면 6문항, ·사회·경제적 측면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웰에이징 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현재수준(실천도)과 필요수준(중요도)을 선택하게 하였다<Table 3>.

#### 3.3.1 신체적 측면 교육 요구도

신체적 측면 중요도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85.4점), '신체활동 및 운동'(82.5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신체적 측면 실천도는 '감염질환 예방 및 관리'(71.7점), '구강건강관리'(65.2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운동'의 중요도는 두 번째로 높은 한편 실천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Importance and performance for well-aging

Spec.	19-34				35-49				50-64				65+				
	Im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Performanc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Physical aspect	Oral health	4.19	0.75	3.57	0.85	4.32	0.68	3.57	0.82	4.31	0.66	3.64	0.82	4.38	0.66	3.75	0.80
	Chronic disease	4.32	0.69	3.39	0.87	4.42	0.66	3.49	0.87	4.46	0.61	3.68	0.79	4.53	0.60	3.75	0.76
	Nutritive control	4.14	0.75	3.41	0.94	4.16	0.68	3.49	0.87	4.08	0.65	3.55	0.77	4.15	0.63	3.58	0.76
	Exercise	4.25	0.71	3.30	1.09	4.33	0.67	3.25	1.05	4.31	0.63	3.46	0.92	4.32	0.59	3.54	0.88
	Environment	4.16	0.75	3.56	0.84	4.18	0.71	3.58	0.82	4.13	0.68	3.62	0.76	4.17	0.69	3.65	0.74
	Sleep & rest	4.33	0.73	3.50	0.98	4.31	0.71	3.48	0.91	4.20	0.68	3.56	0.85	4.16	0.68	3.65	0.80
	infection control	4.15	0.76	3.85	0.77	4.28	0.71	3.77	0.79	4.35	0.67	3.95	0.76	4.39	0.69	3.96	0.73
Mental aspect	self-acceptance	4.12	0.73	3.51	0.92	4.09	0.69	3.44	0.92	4.07	0.65	3.51	0.91	4.01	0.73	3.39	0.84
	View of life	4.20	0.77	3.68	0.90	4.25	0.69	3.59	0.92	4.24	0.67	3.60	0.89	4.22	0.67	3.63	0.83
	Happiness	4.29	0.76	3.73	0.91	4.27	0.70	3.62	0.86	4.26	0.66	3.67	0.86	4.24	0.66	3.67	0.83
	Well-dying	3.97	0.83	3.51	0.91	4.06	0.74	3.50	0.89	4.09	0.73	3.50	0.91	4.18	0.67	3.45	0.88
	Independence	4.21	0.76	3.72	0.87	4.21	0.70	3.69	0.90	4.19	0.66	3.72	0.85	4.17	0.70	3.66	0.91
Self-development	4.21	0.73	3.60	0.90	4.14	0.70	3.51	0.90	4.08	0.67	3.58	0.91	4.11	0.71	3.50	0.89	
Social · Finance aspect	Human relationship	4.22	0.67	3.66	0.86	4.16	0.76	3.59	0.92	4.19	0.91	3.67	0.80	4.19	0.73	3.59	0.76
	Communication	4.19	0.69	3.64	0.84	4.14	0.70	3.62	0.88	4.15	0.69	3.64	0.81	4.22	0.65	3.67	0.78
	leisure activity	4.09	0.70	3.44	0.95	4.05	0.74	3.42	0.98	4.09	0.66	3.45	0.88	4.14	0.66	3.32	0.88
	Social contribution	3.69	0.83	3.10	1.05	3.69	0.81	3.07	1.04	3.63	0.70	3.09	1.04	3.66	0.82	2.94	0.95
	Economic power	4.37	0.68	3.42	1.01	4.31	0.71	3.40	1.00	4.32	0.81	3.40	0.99	4.38	0.69	3.35	0.99

실천도 1~5 : 1. No performance 5. Perform very well / 필요도 1~5: 1. No importance at all 5. Very important

생애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청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중요도 및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노년의 중요도 100점 평균이 88.3점으로 특히 높았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일주일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도 및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영양관리가 '중요하다'(4+5)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3.9%이며, 100점 평균 78.2점으로 7개의 신체적 측면 항목 중 중요도가 가장 낮았고, 영양관리 '실천도가 높다'(4+5)는 응답자는 전체의 48.2%이며, 100점 평균 62.4점으로 7개의 신체적 측면 항목 중 실천도가 두 번째로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규칙적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영양관리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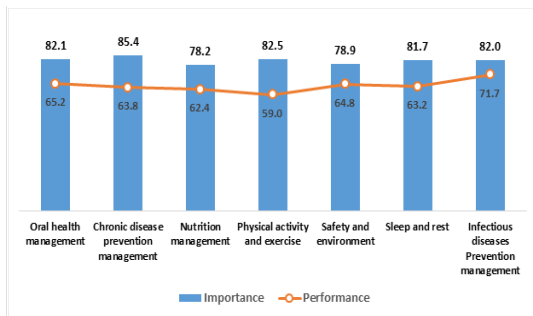


Fig. 1. Physical aspe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average 100 points)

전반적으로 노년의 신체적 측면 중요도 100점 평균이 높으나, '수면과 휴식'의 경우 노년에서 청년층으로 갈수록 중요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신체적 측면 실천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2에서 신체적 측면과 관련된 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실천도를 비교/분석(IPA)한 결과, '신체활동 및 운동', '수면과 휴식',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항목은 중요도는 높지만 실천도는 낮아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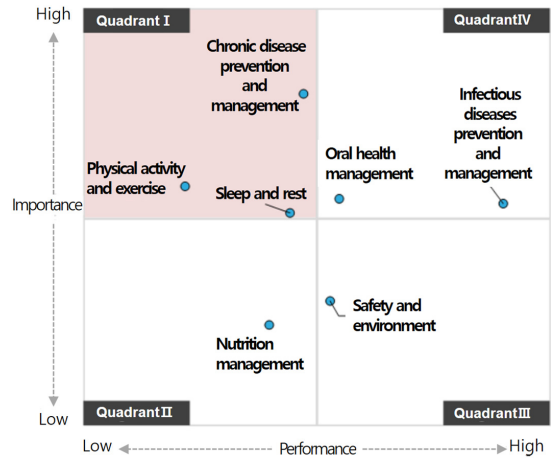


Fig. 2. Physical aspe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 3.3.2 정신적 측면 교육 요구 분석

정신적 측면 중요도는 '행복'(81.7점), '인생관'(80.7점), '자립성'(80.0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적 측면 실천도는 '행복'(66.7점), '자립성'(67.7점), '인생관'(65.4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행복'의 중요도 및 실천도가 가장 높으며, 정신적 측면 6가지 항목의 중요도와 실천도 순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청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정신적 측면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며, 청년 응답자의 경우 '행복'에 대한 중요도는 82.3점으로 가장 높고 '자기 수용감'에 대한 실천도는 58.9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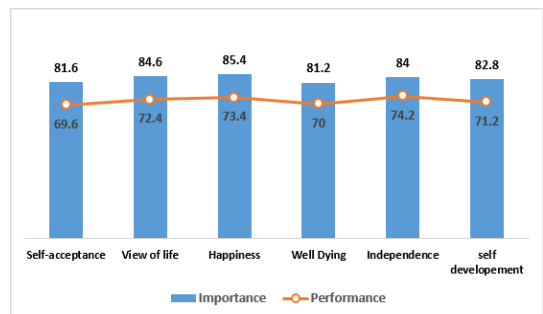


Fig. 3. Mental aspe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average 100 points)

또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건강행태별로 확인한 결과 평소건강이 좋을수록, 일주일에 30분 이상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실천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근로/경제활동 비종사자의 경우 정신적 측면 중요도는 종사자

대비 높은 반면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이 44.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돈'이 36.0%로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청년의 과반수(52.0%)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중장년 및 노년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Fig. 4는 정신적 측면과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실천도를 비교/분석(IPA)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웰에이징을 위한 정신적 측면에서 '행복', '인생관', '자립성' 등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실천도 또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3.3.3 사회경제적 측면 교육 요구도

본인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의 6가지 항목에 대해 중요도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의 100점 평균이 7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여가'(65.6점), '친구(지인) 관계'(63.6점), '지역사회참여'(37.9점), '종교'(37.8점) 순이었다.

사회·경제적 측면 중요도는 '경제력'(83.4점), '인간관계'(79.7점), '의사소통'(79.1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측면 실천도는 '의사소통'(65.9점), '인간관계'(65.8점), '여가활동'(60.7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경제력'의 중요도는 가장 높은 한편 실천도는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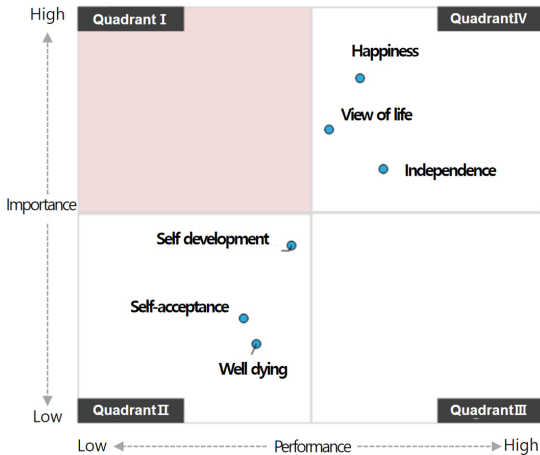


Fig. 4. Mental aspe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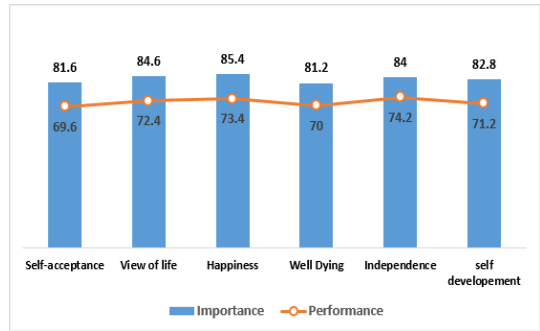


Fig. 5. Socio-economic aspe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average 100 points)

전반적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측면 중요도 및 실천도가 높아지며, 근로/경제활동 종사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측면 실천도가 비종사자 대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측면 실천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실천도를 비교/분석(IPA)한 결과, '경제력' 항목은 중요도는 높지만 실천도는 낮아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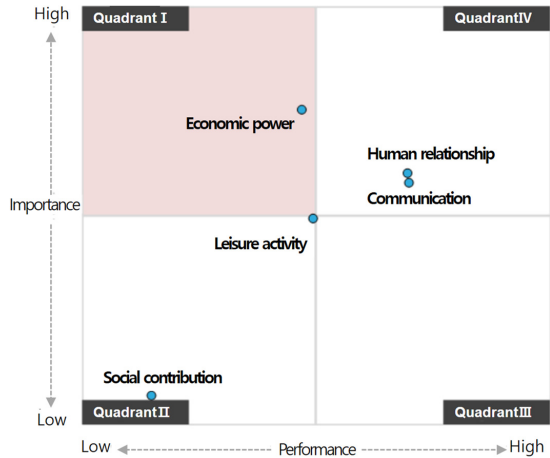


Fig. 6. Socio-economic aspect importance and performance

## 4.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웰에이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949명을 대상으로 웰에이징 교육 관련 일반적 특성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통계분석과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의 하위항목에 대한 교육 요구도 분석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웰에이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42.3%의 응답자가 웰에이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전체의 92.5%이 응답자가 웰에이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웰에이징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하여 웰에이징에 대한 교육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웰에이징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는 청소년기 27.6%, 청년기 29.9%, 중년기 29.3%로 조사되어 응답자 57.5%는 30세 이전에 웰에이징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에서 신체적 측면의 웰에이징 교육 요구도 순위는 신체활동 및 운동이 가장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만성질환관리, 수면과 휴식,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감염병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및 운동

7개의 신체적 측면 항목 중 중요도는 두 번째로 높은 한편, 실천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 응답자,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응답자의 신체활동 및 운동 실천도 100점 평균이 각각 57.6점, 53.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규칙적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신체활동 및 운동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었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및 운동의 중요도 및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면과 휴식에 대한 교육요구 분석에서 생애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노년에서 청년층으로 갈수록 중요도 100점 평균은 높아지는 한편, 실천도 100점 평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주일에 30분 이상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비흡연자 및 최근 한 달 음주하지 않은 응답자의 실천도 100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은 7개의 신체적 측면 항목 중 중요도와 실천도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로 높아 모두 높은 편이며, 청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중요도 및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생애

Table 4.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for well-aging Borich's Needs

Spec.	19-34			35-49			50-64			65+			All ages		
	Educational Needs	Priority within area	Priority of total	Educational Needs	Priority within area	Priority of total	Educational Needs	Priority within area	Priority of total	Educational Needs	Priority within area	Priority of total	Educational Needs	Priority of total	
Physical aspect	Oral health	2.61	5	7	3.22	4	5	2.88	3	4	2.77	3	6	2.91	5
	Chronic disease	4.00	2	3	4.11	2	2	3.49	2	3	3.55	1	2	3.83	3
	Nutritive control	3.03	4	5	2.77	5	8	2.17	5	11	2.36	4	13	2.60	7
	Exercise	4.03	1	2	4.63	1	1	3.68	1	2	3.39	2	4	4.04	2
	Environment	2.47	6	10	2.55	6	12	2.10	6	14	2.17	5	15	2.34	12
	Sleep & rest	3.58	3	4	3.57	3	4	2.72	4	6	2.12	6	17	3.15	4
	infection control	1.22	7	18	2.15	7	18	1.77	7	18	1.90	7	18	1.75	18
Mental aspect	self-acceptance	2.51	2	9	2.66	3	9	2.26	4	10	2.47	3	10	2.47	10
	View of life	2.18	4	15	2.80	1	6	2.74	1	5	2.46	4	11	2.58	8
	Happiness	2.42	3	11	2.78	2	7	2.50	2	8	2.43	5	12	2.56	9
	Well-dying	1.86	6	17	2.31	5	14	2.42	3	9	3.06	1	5	2.30	14
	Independence	2.04	5	16	2.17	6	16	1.94	6	17	2.13	6	16	2.06	17
	Self-development	2.58	1	8	2.61	4	10	2.07	5	15	2.51	2	9	2.42	11
Social · Finance aspect	Human relations	2.37	3	12	2.37	3	13	2.17	3	12	2.51	4	8	2.32	13
	Communication	2.30	4	13	2.16	5	17	2.13	4	13	2.29	5	14	2.20	15
	leisure activity	2.65	2	6	2.56	2	11	2.60	2	7	3.40	2	3	2.68	6
	Social responsibility	2.19	5	14	2.29	4	15	1.95	5	16	2.66	3	7	2.19	16
Economic power	4.13	1	1	3.92	1	3	3.98	1	1	4.52	1	1	4.05	1	

$$\text{Borich's Needs} = \frac{\sum(ICL - PCL) \times ICL}{N}$$

ICL: Importance Competence Level  
 PCL: Performance Competence Level  
 ICL: Average of ICL  
 N: Total cases



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청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중요도 및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노년의 중요도 100점 평균이 88.3점으로 특히 높았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일주일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도 및 실천도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적 측면의 웰에이징 교육 요구도 순위는 자기개발 순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기수용감, 행복, 인생관, 독립성, 웰다잉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교육 요구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인간관계, 의사소통, 사회적 기여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신적 측면 6개 항목 중 실천도가 가장 낮은 자기 수용감은 '중요하다'(4+5)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2.9%이며, 100점 평균 77.0점으로 조사되었고, '실천도가 높다'(4+5)는 응답자는 전체의 49.3%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확인한 결과, 노년에서 청년층으로 갈수록 중요도는 높아지는 한편 실천도는 낮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기 수용감 중요도 및 실천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교육 요구도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경제력으로 조사되었다. 경제력이 웰에이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4+5)는 응답자는 전체의 84.2%이며, 100점 평균 79.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100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남성(78.7점)대비 여성(80.5점)이, 근로/경제활동 종사자(79.2점) 대비 비종사자(80.5점)의 100점 평균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 요구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1%가 본인 삶에서 여가(취미활동)이 '중요한 편'(4+5)이라고 하였으며, 100점 평균 65.6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삶에서의 여가(취미활동)이 '중요한 편'(4+5)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64.6점) 대비 여성(66.7점), 중장년(63.9점) 및 노년(65.9점) 대비 청년(69.7점)의 여가(취미활동) 중요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여가(취미활동) 중요도가 전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웰에이징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교육 요구를 분석과 IPA를 수행한 결과, 웰에이징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적으로 웰에이징

교육을 받은 경험은 5.6%에 불과하여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웰에이징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생애주기별 연령대를 보면 중장년기에서 웰에이징 교육의 필요성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의 시작 시기는 노년층은 장년층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년기와 중장년기에서는 각각 청년기, 중장년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노년층에서는 장년기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웰에이징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웰에이징을 위한 교육 요구도의 전체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경제력,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적인 운동,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경제력 항목을 제외하면 생애주기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향후, 웰에이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 성인 생애주기별 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웰에이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실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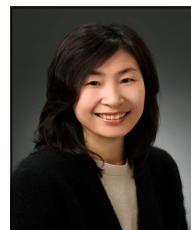
## References

- [1] World Population Ageing 2019,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2020
- [2] M. H. Lee, "Exploratory Study on Social Welfare Perspectives to Well-being and Well-dying",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Vol.30, No.1, pp.12-143, 2013.
- [3] K. O. Kim and S. B. Kim, "New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 Well-Being and Well Dying",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18, No.2, pp.309-317, 2020.  
DOI: <https://doi.org/10.46669/kss.2020.18.2.029>
- [4] S. H. Hwan, "Relationship among Matured Aging Attitude, Depression,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articipating in Dance-Oriented Physical Activity: Focused on Line Dance and Rhythmic Gymnasti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0, pp. 469-477,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0.469>
- [5] Y. M. Kim and J. S. Oh, "Motivation and Meaning of the Elderly Women's Line Dance Experi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2, pp. 471-479,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2.471>
- [6] J. W. Rowe, "Successful Aging of Societ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 Sciences*, Vol.144, No.2, pp.5-12, 2015.

- DOI: [https://doi.org/10.1162/DAED\\_a\\_00325](https://doi.org/10.1162/DAED_a_00325)
- [7] P. B. Baltes and M. M. Balte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1-34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665684.003>
- [8]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Vol.37, No.4, pp.433-440, 1997.  
DOI: <https://doi.org/10.1093/geront/37.4.433>
- [9] C. D. Ryff,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12, No.1, pp.35-55, 1989.  
DOI: <https://doi.org/10.1177/016502548901200102>
- [10] N. Galit and B. S. Idit, *Successful aging as a lifelong Process*, Educational Gerontology, 813-82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11] R. A. Pruchno and M. Wilson-Genderson,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Effects of Early Influences and Midlife Characteristics on Successful aging", *Journals of Gerontologist: Psychological Science*, Vol.70, No.6, pp.850-859, 2015.  
DOI: <https://doi.org/10.1093/geronb/gbu046>
- [12] Life table for 2017, Statistics Korea, Daejeon, 2018
- [13] Y. S. Koh, "A Exploratory Study on the Digital Aging Policies as Solutions for a Aging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1, pp. 115-123,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11.115>
- [14] S. Y. Sohn, "Factors Affecting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Living Alone and Living Together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2, pp. 293-302,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293>
- [15] A. R. Kim, "The Impact of Social Isolation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8, pp. 343-351,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8.343>
- [16] H. H. Lee, "A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Study on the Elderly's Asse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 The Appl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6, pp. 513-522,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6.513>
- [17] J.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Resilience in Middle-aged adults :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8, pp. 253-261,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8.253>
- [18] J. H. Song and M. H. Seong "Factors Affecting of life stress in Middle-aged on Depression:-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3, pp. 235-244,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3.235>
- [19] J. D. Kwon, *Elderly Welfare Theory*, 6<sup>th</sup> Edition, Seoul: Hakjisa, 2016
- [20] R. C. Atchley and A. S. Barusch,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4
- [21] J. F. Helliwell, R. Layard and J. D. Sachs, *World Happiness Report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New York, 2019 .  
<http://unsdsn.org/resources/publications/world-happiness-report-2019/> (last accessed 5/22/2019).
- [22] S. R. Um and H. R. Shin and Y. S. Kim, "The Effect of Onlin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3, pp. 1-12,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3.001>
- [23] G. J. Yi & J. E. Soek, "Does competition improve the quality of the in-home servic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pp.272-304, November 2018.
- [24] M. J. Kim and G. S. Song, "The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Bus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5, pp. 269-277,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5.269>
- [25] J. S. Lee and S. Y. Lee, "The Effects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the Healthy Lifestyle in the Community Elderly: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4, pp. 371-380,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4.371>

구진희(Jin-Hee, Ku)

[중심회원]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컴퓨터 과학교육 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공업(컴퓨터)교육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소프트웨어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소프트웨어공학, 빅데이터, 웹에이징

임 호 남(HyoNam Lim)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 및 노인간호, 암환자, 웰다잉, 웰에이징

김 설 희(Seol-Hee Kim)

[정회원]



- 2005년 3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 석사)
- 2009년 3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구강보건학, 보건학, 교육학, 웰에이징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치매, 노인, 삶의 질, 극복력, 웰에이징

김 용 하(Yong-Ha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생산관리)
- 2003년 4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 행정원장

<관심분야>

자원관리, 서비스품질인증, BSC, 웰에이징

강 경 희(Kyung-hee Kang)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 (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감염관리, 치위생, 웰다잉, 웰에이징

이 중 형(Chong-Hyung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한림대학교 통계학과(이학박사)
- 2001년 3월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복잡계통계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 200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병원경영, 빅데이터, 경영과학, 웰에이징

안 상 윤(Sang-Yoon Ahn)

[정회원]



- 1999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87년 4월 ~ 2000년 12월 : 충남대학교 기획연구실
- 2002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병원조직인사관리, 의료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웰에이징

김 문 준(Moon-Joon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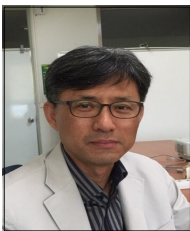
- 1995년 8월 : 성균관대 철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관심분야>

한국철학, 동양철학, 웰에이징

송 현 동(Hyeon-Dong So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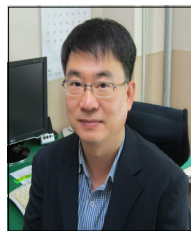
- 2006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관광, 웰니스관광, 죽음학, 종교문화, 웰에이징

박 아르마(Arma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불문과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조교수

<관심분야>

문학비평, 번역학, 학제간 연구, 웰다잉, 웰에이징

황 혜 정(Hye-Jeong Hwang)

[중신회원]



- 2010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예방의학과(의학박사)
- 2012년 3월 ~ 2018년 2월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조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보건정책, 감염관리, 웰다잉, 웰에이징

조 지 용(Gee-yong Jo)

[정회원]



- 2006년 3월 : 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2009년 8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사회복지학)
- 2013년 8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사회복지실천 전공)
- 201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가족치료, 노인복지, 사회적 관계, 웰에이징

장 경 희(Kyung-Hee Chang)

[정회원]



- 2017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교육융합학과 (문학석사)
- 2018년 4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박사 수료
- 2021년 10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죽음교육, 웰다잉, 삶의 질, 문학예술치료, 웰에이징

조 영 채(Young-Chae Cho)

[정회원]



- 1980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관심분야>

공중보건학, 환경 및 산업의학

김 광 환(Kwang-Hwan Kim)

[중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 웰에이징